

수요 인터뷰

“장학·의료·교육불사 매진할 터”

세부계획 수립되면 120여회원 모두 ‘한뜻 추진’

“인연따라 오고 인연따라 가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겠지만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닌 듯합니다.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더 일하고 떠나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부산불교살업인회의 제3대 회장에 추대된 김정태 회장은 이렇게 연임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는 놓으려던 그 자리에 다시 앉으니 어깨가 더 무겁다는 것. -살업인회는 신생활동맹에도 교화·장학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종합병원 건립도 계획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일을 해 오셨고 임기 동안에 펼쳐 나갈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살업인회는 앞으로 장학사업과 의료사업,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각 사업 담당분과위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사업을 위한 1차에산 1천만원의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의료사업은 세부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살업인회는 지난 4년간 불교방송 개국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장학금 1천만원 확보
의료사업 연차실행**

**산사 정기순례로
큰스님 법문듣고
환경운동도 참여**

다. 그러나 인연이 닿지 않아 모든 준비상황을 개국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준비팀에게 인계했습니다. 그간 소요된 2천여만원의 재원도 보시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산불교살업인회는 전국 유일의 불자 경향인 모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불자살업인회가 결성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불자살업인회의 역할은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불교살업인회 120명 회원 모두가 신심이 돈독한 불자이며 전문경영인들입니다. 어떤 형태인 신생활동맹사업이 구체적으로 설정되면 너와 나를 구분없이 한 뜻으로 뭉쳐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불자 경영인은 얼마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타지역에도 이 같은 모임이 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임 자체가 순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인으로서 개인 이익이나 집단이익에 휩쓸리

부산불교살업인회 세번연임
김정태 회장



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불교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니까요. 불교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재물을 모으거나 명예를 앞세우려는 허망한 행위가 드러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심과 보시와 봉사 정신으로 경영인들이 모이는 그런 살업인회가 전국에 생겨나고 나아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이 된다면 불교의 힘이 얼마나 커질까하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개인적 신앙심을 다지는 것과 회원 개인간의 경영에 대한 상호협조 기능이 불자살업인회의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불교살업인회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회원은 매우 다양한 업체의

경영인들입니다. 수시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회원간의 친목이란 바로 그런 의미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기주의와 철저한 자기본위의 가치관으로 얼룩진 사회현실을 직시하면서 엄밀한 자기성찰을 통해 부처님의 일동 제가 되려는 회원들의 노력이 우리 살업인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불교살업인회는 정기적으로 산사를 순례하며 큰스님 법문을 듣는 외에도 환경보호운동에도 적극성을 보여 왔습니다. 경영인으로서 불자로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맑은 자연 속에 살아 숨쉬는 불교,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견지하고 후손에게까지 남겨 줘야 할 과제가 아닐까요. 자연에 대한 경허함과 감사의 마음 그것이 바로 불심(佛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게서도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것과 공해, 환경오염 이것들은 모두 인과의 굴레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까.

부산불교방송 개국을 오랫동안 준비하시다가 지난해 말 개국 준비에서 손을 떼셨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부산불교방송의 개국을 위해 지난 4년간 혼신의 힘을 쏟았었고 부산, 경남권 불자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 관련업자가 추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방송은 상업성 추척회사가 아닌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개국에 필요한 기본 재원 40억원이 순수한 보시에 의해 마련되어야 했고 개국 이후에도 엄청난 재정지원이 필요해서 살업인회가 그 일을 맡으려 했었던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지난 일에 연연해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믿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 좋은 일을 하며 우리의 역할

**부산BBS 발전위해
역할찾아 수행할터**

**“깊은 신심얻어
덩실덩실 춤추는
참불자향해 노력”**

을 수행하겠습니다. 개국된 부산불교방송이 잘 되길 바랍니다.

-회장은 어떻게 불교와 인연 맺으셨는지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때부터 할머니, 어머니의 불공드리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사직동에 연화사를 지으신 정도로 대단한 신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생존시에 그러셨듯이 훌쩍 뛰어 던지고 떠나신 성철스님을 존경하고 가끔씩 <금강경>이나 <법구경>을 읽습니다.

-한사람의 불자로서 오늘날의 불교신행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초발심자에게는 불교가 거룩해 보이고(1단계) 어느정도 알고나면 불교를 욕하고 남을 헐뜯고(2단계) 참으로 깊은 신심에 들어가면 불교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3단계)'고 말합니다. 나도 덩실덩실 춤을 추는 단계에 오르고 싶지만 1, 2단계에서만 맴돌고 있으니...
(원연대 기자)

나의 수행일기

모처럼 차려입은 어머니의 옥색치마 자락이 유난히 곱게 보였다. 보름맞이 불공을 드리러 떠나는 날 새벽,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를 꼭 조심스러웠고 경건함마저 느끼게 했다.

아버지께서 뒷마루에 놓인 쌀자루를 메고 앉았 서신다.

“그냥 두세요. 제가 이고 갈테니.”

“동구밖까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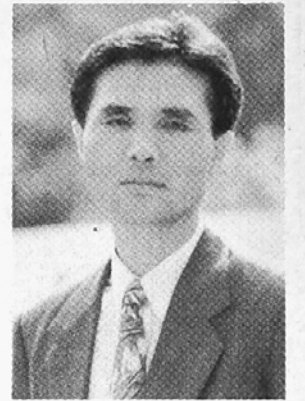
똥이 트기도 전, 두 분은 어둠 속을 나선다. 그 날의 새벽 공기는 신선했다.

그날 아침부터 기다림은 시작되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불공을 드리고 싸가지고 오는 먹을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한지에 정갈하게 쓴 하얀 시루떡 그리고 얇이 굵은 대추와 밤 몇알, 먹을 것이 흔치 않았던 그 시절, 불공이 원지는 몰랐지만 먹을 것이 생겨 좋았다.

저녁 안개가 마을을 덮을 무렵이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기가 짙까지 30리 길이었다. 산 넘고, 개울을 건너고, 잡풀 우거진 산길을 헤치고 꼬박 한나절을 걸어야 했다.

가다림에 지친 나는 저녁을 먹고 마중을 나왔다. 마을 어귀에 쪼그리고 앉아 하염없

이창경
(신구전문대 교수)



기운이 돌고 있었다. 어머니는 허리춤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한장을 꺼내 불전함에 넣으셨다. 그리고 향을 피웠다. 좁은 공간, 향냄새가 낮게 깔렸다. 스님의 예불과 축원이 계속되는 동안 어머니는 절을 하고 또 절을 했다.

눈을 들어 모셔진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원만한 자태, 감은 듯만 듯 묵상하는 눈매, 어느 무명의 조각가가 오로지 불심으로 한칼 한칼 새겼을 것이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수없이 들었을 부처님. 불전에 바치는 몇 되박 곡물일지라도 “30리 길, 찾아오느라 참 고생했다.” 하시며 환한 미소로 흔쾌히 받아들였을 구족하신 부처님.

여러 자식을 객지로 떠나보내고 이 부처님

어머님 얼굴서 부처님자애 발견

마음 바로 닦고 가진 것 나눠주는 보시 배워

이 기다렸다. 겨울 바람은 싸늘하게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느덧 달빛이 길게 이어진 황토길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일에서 백까지 세었다. 그렇게 다시 열번을 세었다.

얼마를 지났을까? 멀리 희미한 그림자, 어머니였다. 하얀 달빛을 이고 황토길을 걸어오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옥색치마는 달빛에 더욱 고왔다.

아득한 30여년 전, 내가 기억하는 절의 이미지는 어머니의 옥색 치마지고리와 정갈

하게 한지에 쓴 한자, 그리고 기다림이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정성으로 다녔던 절을 직접 가본 것은 몇 해 전의 일이었다. 정월 보름이 가까운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절을 찾은 것이다. 쌀 말을 머리에 이고 3살여리를 거뜬히 걸어 다니시던 어머니께서도, 이제 80을 넘긴 나이에 걸을 기력이 없으니 <법구경>을 읽습니다.

-한사람의 불자로서 오늘날의 불교신행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초발심자에게는 불교가 거룩해 보이고(1단계) 어느정도 알고나면 불교를 욕하고 남을 헐뜯고(2단계) 참으로 깊은 신심에 들어가면 불교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3단계)'고 말합니다. 나도 덩실덩실 춤을 추는 단계에 오르고 싶지만 1, 2단계에서만 맴돌고 있으니...
(원연대 기자)

하루를 두고, 새로 포장된 도로를 달렸다. 산 아래에 차를 세워두고 절을 향해 걸었다. 법당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어색할 정도로 허름한 법당과 요사채, 그리고 법당 앞에 세운 3층 석탑, 어머니가 평생을 다니신 태학사의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스님을 만나 안부를 묻고, 곧바로 법당으로 올라가셨다. 석가모니부처님이 모셔진 법당 안은 한겨울 찾는 이 없이 찬



앞에 빌고 빈 사연 한 두 가지였을까? 격식의 문체를 떠나 깊고 심오한 교리를 떠나 부처님은 언제나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케 해 주는 존재로 가슴에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비록 그 소망이 자신의 율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이를 가업게 여기고 큰 가슴으로 받아들였을 부처님. 실령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정성의 부족으로 돌리고 이 절을 찾고 또 찾았을 어머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처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거늘, 어머니의 그 얼굴이 바로 부처였다.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였으니, 교통도 좀 편하고 그럴 듯하게 모양새를 갖춘 절로 옮겨 다니시게 해야 되겠다는 내 생각을 바꾼 것은 바로 그때였다. 비록 사람들 발길 통한 가난한 절이면 어떠하랴. 세상 어느 곳이든 부처님은 계신 것이니, 마음 하나 바로 닦고, 내 가진 것 조금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 그게 바로 부처님을 섬기는 도리가 아닌가.

법당을 나서니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싸 가지고 오셨던 그 정갈한 흰떡 몇 조각과 대추 몇 알을 받아 들고 산길을 내려왔다. 내 어린 시절, 하루를 꼬박 기다리던 것처럼 내 자식들도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까? 눈발은 더욱 거세서.

신심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낱 장식물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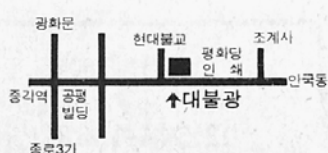


조용한 법당에 부처님의 고즈넉한 자비, 그 미소를 함뱍 담아 가지는 선남자여. 바람벽에 채색된 불화에서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는 보살들이여. 일체의 장엄구 불구에서 수천년의 신심을 함조롭게 꽃피우는 불자들이여.

이 모든 존상물, 탱화, 불구, 석물이 어찌 신불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기저기 대량으로 제작되는 존상물의 홍수에서 우리의 믿음을 손상하게 된 적이 얼마입니까. 부처님은 거북하고, 진리는 평평하니 더 없이 높으신 생명의 자람입니다.

전시관 개원식
4월 1일(土) 15:00~18:00



大佛光

서울 종로구 전지동 110-43
전화 : (02) 738-1117
FAX : (02) 738-1118

신심이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낱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존상은 흙, 나무, 돌, 쇠, 종이로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그 조성에는 장인의 신심과 예술적 가피가 함께 깃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여러 장인들이 열여 놓은 “大佛光”에 모든 불자들이 친히 왕림하시어 존상의 신앙성을 우려러 보고, 또한 장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부량한 공덕이 함께 할 장엄불구를 조성케 하려 하오니 “大佛光”으로 나오셔서 일가견을 이룬 장인불자들과 상면하시기 바랍니다.

“大佛光”은 부처님을 열망적으로 신앙하는 순수장인들의 공동광장이며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향사하며 기나리고 있습니다.

관장 허길용 함장